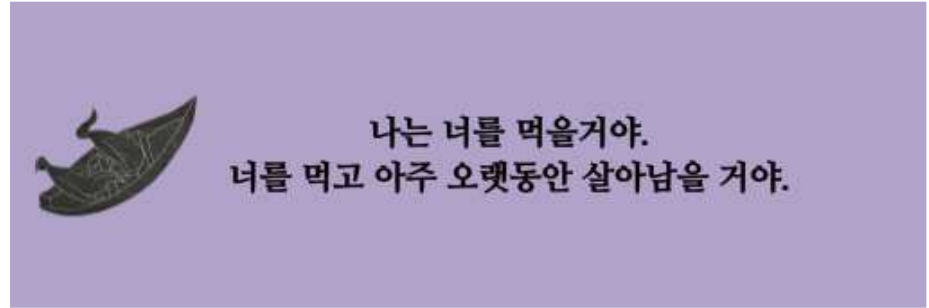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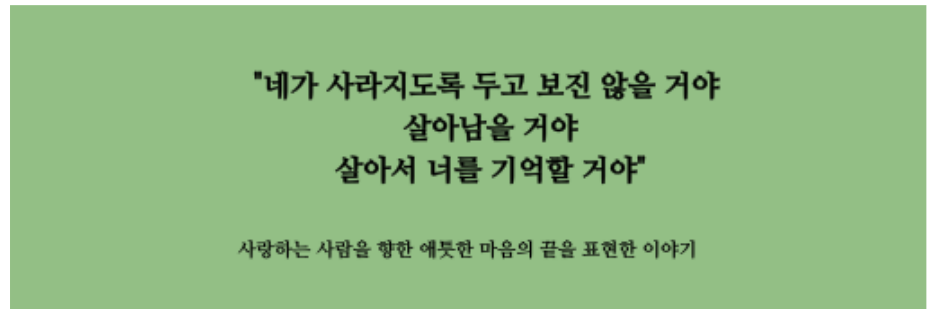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독자들의 재탄생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4년 11월 5일(화요일) / 장 소 : c.square							
참석자 명단	학번	2024*****	이름	박**	학번	2024*****	이름	신**
	학번	2024*****	이름	홍**	학번	2024*****	이름	한**
	학번	2024*****	이름	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 토의 내용</p> <p>활동 계획 구의 증명-최진영을 읽고 책의 띠지 만들어 보기 책을 사려고 책방에 가면 여러 책에 띠지들이 둘러져 있다. 이는 많은 독자들이 책을 고르는데 영향을 미치기에 책을 읽고 각자 이 책의 장점을 살려 새로운 띠지를 만들어 보려 한다.</p> <p><구의 증명 줄거리> 담과 구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친구이자 연인으로,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는 불행히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 사건은 담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기게 됩니다. 담은 구를 잃은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그의 시체를 먹겠다고 결심하게 되고 이는 그를 잊지 않기 위한 극단적인 방법으로, 담은 구의 살을 통해 그와의 기억을 영원히 간직하고자 합니다. 최진영 작가의 소설 구의 증명은 사랑과 죽음,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을 탐구하는 독특하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주인공 담과 구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그들의 사랑이 어떻게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 소설은 사랑이 얼마나 복잡하고 때로는 기괴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담은 구를 잃은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그의 일부를 소유하고자 하며 이는 현대 사회의 잔인한 현실을 반영합니다. 담의 극단적인 선택은 독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사랑의 복잡성을 깊이 있게 생각하게 만듭니다.</p> <p>이를 바탕으로 각자 이 책의 가장 기억의 남는 장면이나 말들을 이야기해보니, 자연스레 '나는 너를 먹는다'라는 말이 적힌 부분과 그 먹는다는 의미를 사랑으로 해석한 뜻이 있는 글의 부분, '너를 먹고서라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너를 기억한다'는 말이 나온 부분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장면이라고 했다. 그래서 띠지의 앞쪽과 뒤쪽을 모두 활용하여 앞쪽은 매우 기괴하면서도 공포적인 느낌을 주는 '사람을 먹는다'라는 문구로 독자를 의아하게 만들고 책을 집어서 뒤를 보다가 공포인 줄 알았는데 뒤쪽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애절한 마음의 끝을 표현한 로맨스 소설'의 문구를 보고 독자들의 호기심을 더욱 불러오기 위한 전략을 기반으로 만들었다. 또한 책 띠지의 디자인은 새로 리뉴얼 된 책의 표지를 기준으로 표지색과 상반되는 색을 사용했고 그림은 처음 출시된 책에 있는 그림을 활용했다.</p>							

<완성한 책 따지의 디자인>



<앞>



<뒤>

활동 느낀점:

박**

구의 증명을 읽고 매우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 아무리 사랑해도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먹지? 그리고 사람의 머리카락을 먹으면 소화가 안돼서 머지않아 자기도 죽을 텐데?라는 매우 현실적인 사고를 가지고 스테디룸에 들어갔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나와는 정반대로 주인공들은 운명공동체이며, 사랑 표현의 고정관념을 벗겨 내주 었으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활동은 나에게 조금 새로운 시선을 가져다주었다. 나와 성격이 비슷하고 취향도 비슷하고 같은 전공을 배우는 친구여서 로맨스 소설이라길래 나도 로맨스 좋아하니까 이 책 또한 매우 기대한 마음으로 읽었는데 생각과는 너무 다른 전개로 펼쳐졌고 나와 다른 것들이 매우 잘 맞는 친구가 책과 관련되어서는 또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구나를 느꼈다.

신**

책 구의 증명을 읽고 나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책 뒤 표지의 문구는 단순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정도가 아니라 , 나의 사랑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다. 일반적으로 사랑은 행복, 기쁨 혹은 따듯한 감정으로 여겨지지만 구의 증명은 그와 반대로 어두운 면모와 고통 속에서도 깊이 존재하는 사랑을 보여주었다. 이 책은 독자에게 사랑이 극단에 이르면 그 끝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모든 경계를 초월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 같다고느꼈다. 구의 증명은 사랑의 이면을 통해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감정의 복잡성을 일깨워 주었고 그로 인해 사랑에 대한 새로

운 관점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책인것 같다.

홍**

구의 증명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먹는 것이 나온다. 구와 담은 서로가 서로의 유일이었다. 그래서 구와 담은 운명공동체로서 같이 살고 같이 죽기를 원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구가 죽은 후, 담은 자신이 구를 먹음으로써 자신의 몸에 함께 존재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사실, 사람을 먹는 것 자체가 공감의 잘 되지는 않았다. 이걸 책을 읽는 초반도 그렇고 읽고 나서도 여전한 생각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사랑이라는 감정은 아름다우면서도 무섭다'라고 생각했다.

한**

책 뒷면 소개글에 "만약 네가 먼저 죽는다면 나는 너를 먹을 거야."라고 적혀있었다. 나는 책을 읽기전 이 문장을 보고 사람을 먹는다는 표현이 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소설을 읽고 나니 위 문장만큼 상대방에 대한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이 죽은 후에도 그의 존재를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지 않기에, 기억하고 싶기에 그 사람을 먹는다는 비유를 사용해 표현한 것 같다. '구의증명'이라는 소설의 이름 또한 소설을 핵심을 담았다고 생각한다. '담'은 '구'가 죽은 후에도 그를 먹음으로써 '구'의 존재를 증명해냈다. 단순히 죽은 후에 그를 먹음으로써가 아닌 '담'과 '구'의 서사가 있고, 그 후에 그를 먹었기에 '구'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남아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었던 책이었다.

임**

사랑하는 연인의 죽음 후에 '먹는다'라는 표현을 통해 그들의 처절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에는 너무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라 거부하기도 했지만 '구'와 '담' 둘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읽으며 이해할 수 있었다. 그토록 사랑했던 연인을 죽음으로 떠나보낼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이 책에서 구의 죽음은 어떤 의미일지 궁금해졌다.

2024년 11월 05일

참가자대표 : 박**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독자들의 재탄생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4년 11월 12일(화요일) / 장 소 : clc 4층 스터디룸							
참석자 명단	학번	2024*****	이름	박**	학번	2024*****	이름	신**
	학번	2024*****	이름	홍**	학번	2024*****	이름	한**
	학번	2024*****	이름	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 토의 내용</p> <p>활동 계획 -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롤루 밀러를 읽고 책 추천글 써보기 책의 뒤에는 책을 출간하는 작가의 동료들이 책에 대한 추천글이 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책을 재출간 할 때 새롭게 작성해 보기 위해 진행하려고 한다.</p> <p><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줄거리> 갑자기 찾아온 오랜 연인과의 이별을 이기지 못한 저자는 위기를 극복한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삶을 통해 혼돈을 이기려는 힘을 얻고자 했다. 그는 거대한 자연에 의해 한순간에 자신이 쌓아온 것을 모두 잃었지만 초인적인 노력을 통해 이를 극복해낸다. 그의 원동력은 무엇이였을까? 저자는 위 물음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 그의 삶을 추적하며 잘못된 통념에서 벗어나 자신의 정체성을 인지하게 됨으로써 혼돈에서 벗어나게 된다.</p> <p><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추천글>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Why Fish Don't Exist> 사랑과 혼돈, 과학적 집착에 관한 롤루 밀러의 경이롭고 충격적인 데뷔작! 책의 제목에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는 사람들, 반전의 반전을 넘나드는 책을 읽고난 독자들이 이야기 하는 추천의 말!</p> <p>“우리는 물고기를 흔히 볼 수 있다. 실제로 보는 것 뿐만 아니라 매체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궁금하다면 이 책을 펼쳐보길 바란다. 환상적인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_<선택은 망설이다가>를 인생 책으로 꼽은 독자</p> <p>이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 책의 초반은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지</p>							

전혀 감이 안 잡혔었다. 그렇지만 책의 중반이 지나가면서부터 이 책이 심오하고 깊은 지혜를 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책 제목의 의미가 밝혀졌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들의 틀이 약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책을 통해 내가 가진 고정관념들만이 맞다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새로운 지식들을 적절히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 같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을 가장 따뜻하게 읽은 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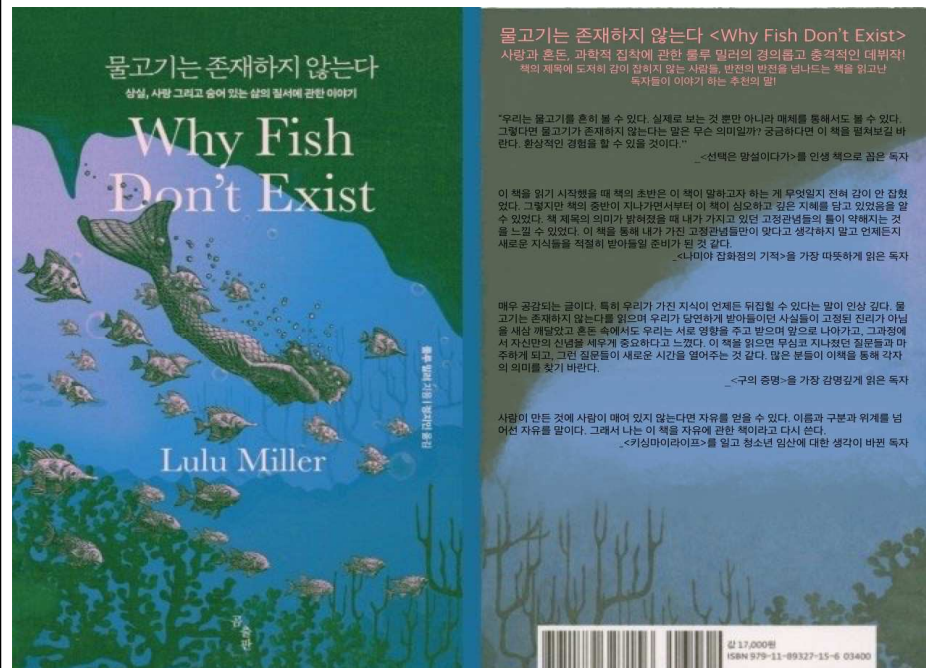
매우 공감되는 글이다. 특히 우리가 가진 지식이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말이 인상 깊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읽으며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사실들이 고정된 진리가 아님을 새삼 깨달았고 혼돈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그과정에서 자신만의 신념을 세우게 중요하다고 느꼈다. 이 책을 읽으면 무심코 지나쳤던 질문들과 마주하게 되고, 그런 질문들이 새로운 시간을 열어주는 것 같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 각자의 의미를 찾기 바란다.

-<구의 증명>을 가장 감명깊게 읽은 독자

사람이 만든 것에 사람이 매여 있지 않는다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름과 구분과 위계를 넘어선 자유를 말이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자유에 관한 책이라고 다시 쓴다.

-<키싱마이라이프>를 읽고 청소년 임신에 대한 생각이 바뀐 독자

<책 표지 뒤에 추천글을 넣어 봄.>



느낀점:

박**

와우... 살면서 이토록 어려운 책은 처음이다. 내가 철학을 어려워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책의 앞부분은 철학과 과학이 합쳐져 내 머릿속에서 춤을 췄다. 이번 활동은 마치 거대한 프로젝트를 마친 느낌이다.

신**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과학적 사실과 철학적 질문이 얽힌 독특한 구조를 통해 우리가 진리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에 대해 깨닫게 하는 책인것 같다. 단순한 생물학적 탐구를 넘어 어떤 존재의 의미가 얼마나 유동적이며 주관적인지를 상기시키기 때문에 이책을 읽고 나면 세상을 보는 관점에 변화가 생길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삶에서 만나는 혼돈과 불확실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서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준것 같다.

홍**

이 책은 유명한 책이고, 철학, 과학 관련 책에 흥미가 있어 읽고 싶었던 책이었다. 하지만 초반에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은 ‘어렵다.’이다. 그래서 책에 집중하기도 힘들었다. 그래도 다 읽고 싶었기 때문에 참고 읽었다. 점점 뒤로 갈수록 흥미로웠다. 과학의 광활함으로 인한 허무주의가 인상 깊었는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다. 그 때부터 책을 더 읽고 싶어졌고, 책을 읽을 동기가 되어주었다. 또, 긍정적 착각 등의 내용이 기억에 남는다.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해주게 한 이 책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다.

한**

이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 책의 초반은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지 전혀 감이 안 잡혔었다. 그렇지만 책의 중반이 지나가면서부터 이 책이 심오하고 깊은 지혜를 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책 제목의 의미가 밝혀졌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들의 틀이 약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책을 통해 내가 가진 고정관념들만이 맞다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새로운 지식들을 적절히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 같다.

임**

이 책은 2년 전 한번 읽었던 책이었다. 하지만 심비우스 북클럽 활동을 위해 한번 더 꼼꼼하게 읽어보고 친구들과 소감을 나누어보니 새롭게 느껴졌다. 특히 추천글을 작성해보는 활동을 통해 책의 주제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2024년 11월 12일

참가자대표 : 박**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독자들의 재탄생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4년 11월 14일(목요일) / 장 소 :도서관 3층 스터디룸							
참석자 명단	학번	2024*****	이름	박**	학번	2024*****	이름	신**
	학번	2024*****	이름	홍**	학번	2024*****	이름	한**
	학번	2024*****	이름	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 토의 내용</p> <p>활동 계획 - 키싱 마이 라이프-이옥수를 읽고 토론하기 이 책으로는 토론을 진행해 보려고 한다. 책이 다루는 내용이 출간되었을 때와 지금이 책을 읽고 다시 출간할 때는 10년도 지났기에 또 다른 관점이 생기지 않았을 까라는 마음 토론을 진행해 보려고 한다.</p> <p><키싱 마이 라이프>줄거리 주인공은 미성년자인 고등학교 1학년 하연이와 채강이이다. 하연이와 채강이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고 있는 연인관계이다. 어느 날 채강이네 집에 놀러 온 하연이는 와인도 마시고 놀다가 술김에 관계를 하게 되고 그 후 생리를 오랜 기간하지 않자 걱정된 하연이는 병원을 방문하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엄마에게 말 할 수 없는 하연이는 진아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아이를 지우기 위해 채강과 서로 알바를 하며 돈을 모으지만 결국 초음파의 아이를 보고 지우지 못하고 그냥 나온다. 그 후 정정 배가 불러온 하연이는 집을 나와 미혼모 센터에 가지만 미혼모 센터에서는 부모의 동의를 필요했고 결국 엄마의 도움으로 센터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아이를 낳는 장면으로 이야기는 끝이 난다.</p> <p><Chat Gpt를 이용한 토론 진행> 토로 주제는 한국 방송사 MBN에서 방영하는 고딩엄빠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TV에서 다루기 적합한 내용인가. AI는 반대측, 독자들의 재탄생 팀원 모두 찬성측</p>							

책 이름: 키싱 마이 라이프 저자: 이옥수의 책을 읽고 토론을 하려고 해. 토론의 주제는 한국 방송사 MBN에서 방영하는 고딩엄빠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TV에 나오기 적합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로 찬성과 반대에 대해 이야기를 할건데 나는 찬성 측 너는 반대측으로 토론을 진행해보자. 찬성측의 입론 먼저 말할게

메모리 업데이트

좋아, 찬성 측 입론부터 시작해줘.



mbn사의 '고딩엄빠' 프로그램이 현재까지 많은 논란 속에 있다. 청소년 임신과 출산에 대해 다루고 있는 <키싱마이 라이프>를 읽으며 '고딩엄빠' 프로그램이 TV에 나오기 적합한한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고딩엄빠' 프로그램은 TV에 나오기 적합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1. 첫째, 청소년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2020년 기준으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부모 가구는 2479구로 적지 않은 수이다. 하지만 10대의 임신과 출산은 쉬쉬되거나 음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고딩엄빠'는 미성년 부모들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다루며 패널들의 공감, 전문가의 조언을 다루고 있다. 이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공감 할 수 있게 만들고 시청자들이 이들을 이해하고 편견을 없앨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미성년 임신과 출산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미리 예방 할 수 있다.
2. 둘째, 청소년들의 임신과 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하여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방송 중 심리상담가 박재연은 "청소년 10명 중에 3명은 피임 도구 없이 성관계를 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10대 때의 출산은 낙태, 입양, 아동학대 및 유기 등 여러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 10대 때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사회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다. '고딩엄빠'를 통해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조명하면서 '미혼모의 집' 등 대책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다.
3. 셋째, 출연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고딩엄빠' 제작진은 이른 나이에 부모가 된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고 프로그램의 취지를 밝혔다. 실제 프로그램 안에서는 전문가 군단과 함께 맞춤형 솔루션까지 제공하고 있다. 스튜디오 전문가 패널인 이인철 변호사, 조영은 심리상담가 등은 청소년 부모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제작진들은 출연자들의 재출연을 통해 사후점검을 하고 있다. 그 예로 '천사병마' 김서아는 시청자들의 후원으로 카페 창업에 성공하였고 '멕시코 출신' 미리암은 각종 단체의 후원으로 출산 및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받았으며 '예술맘' 김예빈은 성분변경을 완료해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고딩엄빠' 프로그램은 출연자들의 사연을 소개하며 다양한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청자들은 그들을 보며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며 결국 청소년 임신과 출산에 대한 편견이 없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고딩엄빠 프로그램이 TV에 방영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찬성 측 입론 잘 들어. 이제 반대 측 입장에서 반론을 해볼게.

반대 측 입장: '고딩엄빠' 프로그램은 청소년 임신과 출산 문제를 공론화하고 미성년 부모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취지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주제를 예능 형식으로 다루는 방식은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1. 미성년 임신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 전달 가능성

프로그램이 미성년 부모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과정을 예능 형식으로 포함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미성년 임신을 지나치게 낭만적으로 생각하거나 가볍게 여길 위험이 있다. 방송을 통해 미성년 부모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줄 경우, 다른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나도 할 수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키싱 마이 라이프*와 같은 책에서처럼 청소년 임신의 현실적인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것과 달리,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 이 주제를 상대적으로 가볍게 인식하게 할 수 있다.

2. 사생활 노출과 출연자들에 대한 비판 가능성

청소년 임신은 사회적으로 예민한 주제인데, '고딩엄빠'는 출연자들의 사생활을 대중 앞에 드러내며 그들에게 긍정적인 관심뿐 아니라 비난과 낙인을 부여할 수 있다. 일부 시청자들은 미성년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게 되고, 출연자들이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오히려 개인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3. 사회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부재

'고딩엄빠'는 청소년 임신과 출산의 현실을 보여주고 문제를 인식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지만,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지원과 조언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 방송이 일시적인 지원과 일화적인 도움에 집중할 뿐, 청소년의 성교육 강화나 정책적 대안을 촉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키싱 마이 라이프*에서 보여주는 청소년들의 고충처럼 장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 정책이 필요한데, 예능 프로그램의 형식은 이러한 문제를 깊이 있게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고딩엄빠'가 청소년 임신의 현실을 조명하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TV 예능으로 방영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왜곡하거나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하다는 입장이다.

👍 🗨️ 🔄 🏠 📄



3번째 근거에 대해 반론을 알게. 해결책이 없다고 해서 방송을 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
방송에 의도 자체가 청소년 임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 해서 국가에서 해결책 마련할 발판을 제공하는 것이다.
해결책이 없다고 방송을 하지 않는 것은 국가에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반론이야. 그렇다면 반대 측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 다시 응답해 볼게.

재반론: 청소년 임신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의도는 물론 중요하고 가치가 있어. 하지만, 해결책이 없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예능 형식으로 다루는 방식은 오히려 무책임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공론화 자체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프로그램의 형식이 심각한 문제를 지나치게 가볍게 다루거나 표면적인 관심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특히,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할 위험이 있다면, 공론화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수 있다. 오히려 이런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다큐멘터리 형식이나 교육적인 프로그램 형식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임신과 출산이 단순한 개인의 고충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 입론에 대해 하나의 반론을 제시해줘

< 2/2 >

알겠어, 찬성 측 입론 중 첫 번째 근거에 대해 반론을 제시해 볼게.

반론: '고딩엄빠'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방송의 방식이 충분히 신중하지 않을 수 있다. 청소년들이 임신과 출산의 현실을 접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데 그칠 수 있고, 깊이 있는 이해나 예방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인 또래들을 시청하면서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호기심이나 흥미로 접근할 가능성도 있다. 공중파 예능의 특성상 프로그램은 시청률을 위해 자극적이거나 감정적인 연출을 부각할 수 있는데, 이는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고딩엄빠 프로그램은 청소년 출산에 관해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깊이있는 이해나 예방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프로그램 방영금지나 아닌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찬성측의 재반론 및 결론을 이야기 한거야. 반대측의 결론을 이야기 해줘

반대 측 결론:

'고딩엄빠'가 청소년 임신과 출산의 문제를 공론화하여 사회적 관심을 모으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예능 형식으로 방영하는 것은 오히려 이 문제를 잘못된 방식으로 전달할 위험이 크다고 본다. 청소년들에게 단순히 흥미 위주의 접근이 가능하고, 미성년 임신이 가볍게 여겨지거나 낭만적으로 묘사될 우려가 있다. 공론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이를 적절히 다루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다큐멘터리나 교육 프로그램 형식이 더 적합하다.

따라서, 현재의 예능 형식이 아닌, 보다 신중하고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형식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 ☹ 🗨 📄 🔄

느낀점:

신**

이번 토론을 통해 키싱 마이 라이프가 청소년 임신과 출산의 복잡한 현실을 얼마나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지 다시금 느꼈다. 책에서는 청소년 부모가 겪는 심리적 고통과 사회적 편견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이들이 사회적 지원과 이해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이 점에서 '고딩엄빠' 프로그램의 공론화 의도를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청소년 임신이라는 주제를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느꼈다.

책과의 연결을 통해 청소년 임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이러한 문제를 다룰 때는 프로그램 형식뿐 아니라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도 신중히 고려해야 함을 배울 수 있었다.

한**

화제가 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인 '고딩엄빠'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 준비를 하고 AI와 토론을 해보니 청소년 부모라는 문제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된 것 같아 좋았다. 우리는 찬성측 입장이었지만 반대측 입장도 예상하다 보니 한 주장에 치우치지 않고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 좋았다. 고딩엄빠라는 주제로 매우 다양한 생각들을 들으니 내 사고의 폭 또한 넓어진 것 같아 좋았다. 앞으로도 '청소년 부모'라는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임**

책을 읽고 토론하는 활동은 많이 해보았지만 AI와 하는 토론은 생소한 경험이였다. chat gpt의 주장과 근거는 논리력을 바탕으로 깔끔했다면, 나의 주장은 근거만 나열하여 논리력을 갖추지 못한 것처럼 느껴졌다. 게다가 문장도 다듬어져 있지 않았던 느낌이라 토론 중 내 주장과 반론 내용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고 다듬는 계기가 되었다. 서로 다른 시각을 공유하며 책에 대한 이해와 사고의 폭이 넓어질 수 있었다.

홍**

'고딩엄빠'라는 tv프로그램을 원래 알고 있었다. 사실 그렇게 좋아하고 종종 보는 프로그램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키싱 마이 라이프'랑 '고딩엄빠'를 연관지어 활동하는 것은 좋은 생각인 것 같았다. '키싱 마이 라이프'를 읽을 때, 술술 읽혔다. 보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다. 개인적으로 책에서 심리 묘사가 적나라한 것을 좋아한다. 여기에서는 여자 주인공의 생각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좋았다. 이 책의 주제인 미혼모에 관한 것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예전에는 고등학생들이 임신하는 것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봤다. 하지만 고딩엄빠를 보고 이 책을 보면서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보게 되었다. 이런 사람들을 응원하고 싶다.

박**

이 책은 내가 선택한 책이다. 내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틀어 책을 읽고 난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내용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억났던 책이 없었다. 또한 이 책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는 청소년 임신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옛날부터 청소년들의 문제는 어른들이 바꿔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문제를 정확히, 완벽히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더군다나 나는 청소년의 학교 폭력, 마약, 술, 담배들

보다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한 문제가 바로 미성년자의 임신이다. 그 이유는 문제의 책임 비중이 불평등하게 측정되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은 더 괴롭힌 자와 방관자 모두 책임을 묻고 술, 담배를 하면 그 행위를 한 모두에게 마약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청소년 임신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가 한 행위이지만 그의 대부분의 책임은 비정상적으로 한쪽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예전부터 난 청소년들의 문제 중에 미성년자 임신에 대해 부조리하다고 느꼈고 그에 대해 매우 관심도가 높았다. 그래서 요런 고민들을 하나둘씩 이 기회를 통해서 조금씩 해결할 만한 실마리를 가져 보려고 한다. 이게 그 첫 번째 활동이 될 것 같다. 이번 활동은 AI와 토론을 한다는 매우 새로운 시도로 활동의 의미가 무척 깊다. AI를 통한 활동에 대한 느낀 점을 짧게 말해보자면 토론을 한 번도 텍스트로 해 본 적이 없어서 미숙한 점도 있었겠지만 말로 하는 진행보다는 속도가 매우 느리게 전개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반론을 제시해도 AI는 매우 비슷한 답변들 즉,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못한다는 점이였다.

2024년 11월 14일

참가자대표 : 박**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독자들의 재탄생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4년 11월 19일(화요일) / 장 소 : 도서관 3층 스테디룸							
참석자 명단	학번	2024*****	이름	박**	학번	2024*****	이름	신**
	학번	2024*****	이름	홍**	학번	2024*****	이름	한**
	학번	2024*****	이름	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 토의 내용</p> <p>활동 계획 -선택은 망설이다가-임발을 읽고 책 서평 쓰기</p> <p>독자들은 책을 사거나 읽기 전 스포일러를 좋아하거나 조금의 흥미를 위해 줄거리나 다른 사람의 서평을 찾아본다 또한 책을 읽은 후 나의 생각과 같거나 반대인 생각들이 궁금해서 인터넷에 책의 서평을 찾아보는 독자들이 많아 이미 인터넷에 많은 책들의 서평이 블로그 형식으로 올라와 있다. 이 또한 책을 재출간 하려는 편집자가 돼보려면 꼭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해 진행해 보려고 한다.</p> <p><선택은 망설이다가에 대한 독자들의 서평></p> <p>홍**</p> <p>처음에는 <선택은 망설이다가>라는 책이 있는지 몰랐고,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다. 제목에서부터 눈길을 끌었는데, 그때 당시에 선택이라는 것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 삶이 바뀌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제목만 보고도 책을 사기로 결정했다. 이 책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선택의 결정에 관련된 소설이 모여져있다. 여기서 가장 인상깊었던 부분은 <나는 행복하다>이다. 시한부가 된 주인공의 이야기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범죄자를 죽이는 이야기이다. 처음에는 신선하기도 하고 실제로 생각할 수 있을법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흥미진진하게 봤다. 그러면서 ‘내가 시한부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죽이고 싶은 사람은 없고, 그렇다고 범죄자를 죽이고 싶은 마음은 크게 없었다. 사실, 죽음에 대해 크게 와닿지 않아서 가볍게 보고 넘어갔었다. 그런데 호스피스 병동 관련 강의를 듣게 되었다. 호스피스병동에서 일어난 일들을 듣고, 시한부가 된 사람들의 선택, 결심을 들으면서 갑자기 이 책이 떠올랐다. 그러면서 죽음과 선택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어떤 한 분은 처음에는 좌절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있었</p>							

다. 하지만 나중에는 자신이 매일 하던 가구 만드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을 발명하기도 하며 보람있는 시간을 보냈다. 다른 분은 자신이 목표로 했던 자전거로 여행하기를 실천했다. 책의 주인공은 앞서 멀했듯이 사람을 죽였다. 각자 다 다른 선택이지만 자신의 신념에 따라 선택했고,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했다. 나도 만약 시한부가 된다면, 내 끝을 알게 된다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것은 바뀌겠지만 지금 당장으로는 부모님과 렉서리 여행을 하고 싶다. 선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해주고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하게 해준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신**

임발의 "선택은 망설이다가"를 읽고 서평을 작성한 후, 여러 가지 깊은 감정을 느꼈다. 우선, 이 작품이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선택의 순간들을 얼마나 섬세하게 탐구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우리의 삶을 형성한다는 메시지는 매우 강렬하게 다가왔고, 그 선택들이 가져오는 감정의 무게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사랑의 유효기간' 이야기를 통해 사랑과 관계의 복잡성을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결말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해석하고 상상하게 만드는 방식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기혁과 미호의 관계를 통해 느낀 감정은 단순한 이야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그로 인해 독자로서의 참여감이 더욱 커졌다. 이러한 경험은 독서의 즐거움을 한층 더해주었고 나 자신이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듯한 몰입감을 느끼게 했다. 또한 서평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내 생각을 정리하고,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임**

서평: 책의 제목만을 보고 항상 선택의 순간에서 망설였던 경험이 생각났다. 이 책은 여러개의 단편소설로 구성되어있었고 각 소설의 내용이 짧아 빠르게 읽혔다. 담담하게 서술하는 작가의 문체는 각 인물들이 꼭 내 주변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이 책은 각 인물들이 선택의 상황에 있을때 선택의 어려움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택이라는 행위를 통해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들여다보게 한다. 읽는 내내 책 속 인물들의 선택의 과정, 그 결과와 갈등을 보며 나에게 대입해 나의 선택을 되돌아보았다.

책을 읽으면서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과정 속에서 압박과 고민을 느꼈을 때의 경험을 회상하며 그 순간들에 대해 되새기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느꼈다.

한**

'선택은 망설이다가'라는 책은 선택을 하기 전 망설이는 모습들을 단편소설들을 써서 그들을 묶은 책이다. 한 책 안에 '나는 행복하다', '나대지 않겠습

니다', '글쓰기 강의는 누가 해야 하는가' 등 여러 단편소설들이 있는데 이 단편 소설들의 공통점은 주인공이 선택을 해야하는 순간이 오고 선택을 하기 전 망설이는 모습과 그로 인해 얻은 결과들을 이야기로 풀어냈다는 점이다. 과거에 어린 나에게 어른들은 인간의 삶이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나는 이 말에 항상 동의해왔다. 아직 20년밖에 살아오지 않았지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이 시간을 살아오면서도 나에게서는 무수히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존재했다. 나에게 '선택'이란 항상 두려우면서도 설레는 것이었다. 하지만 항상 두려움이 좀 더 컸었다. 선택하고 나서의 결과를 모르니 선택을 해야하는 모든 순간에서 나는 최대한 신중하려고 노력했고 이로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 저자는 여러 단편소설들로 선택을 해야하는 순간들을 보여주고 소설의 주인공들의 이야기로 독자에게 선택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과 선택을 할 용기를 전달해주고 싶었던 것 같다고 생각했다. 선택은 결과를 모르기에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선택을 하지 않으면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선택을 너무 두려워하지만 말라, 용기를 내라. 이러한 이야기를 저자는 전달하고 싶었다고 생각했고, 마음에 와닿았다. 이 책을 읽고나서 앞으로도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오겠지만 그 순간들을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괴로운 순간으로 만들지 말고 용기내서 망설임없이 도전하는 마음으로 선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은 평소 나처럼 선택하는 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선택을 두려워한 한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이 책은 '선택'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선택은 인간적으로 더 성숙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자 좋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시작행동일 뿐임을 말하며 용기를 심어준다. 이 책을 읽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다.

박**

책 뒤쪽 이야기가 모두 끝나고 작가의 말을 읽기 전 까진 이 책에 큰 의미를 느끼지 못했다. 이 책은 마치 현대의 알 수 없는 설치미술을 보는 느낌이었다. 요즘 전시관에 가면 딱 보자마자 알 수 없는 의도의 작품들이 많다. 하지만 그 작품의 오른쪽 혹은 왼쪽의 아주 조그마한 작품의 설명을 보면 이해가 되는 것처럼 말이다. 이 책의 작가의 말에는 이런 글이 적혀있다.'제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망설이고 주저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계속 무언가를 선택합니다.' 그 순간 아차 했다. 각 단편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 고민되는 상황을 가지고 있고 꼭 선택을 해야만 했다는 것이 마치 우리의 지금 삶처럼... 그래서 주인공들의 공통점이나 의미를 눈치채지 못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술술 넘기면서 읽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쓰여있는 작가의 말, '누군가의 선택은 인물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무언가를 선택하는 인물들의 심리 상태와 행동 묘사를 통해서 삶의 부조리를 조금이나마 조명하고 싶었습니다. 역설적으로 당신의 삶은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들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평온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글에 나는 알게 모르게 위안을 느꼈다.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나만의 삶을 이겨내는 혹은 안 좋은 상황에서도 무언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할 때 나는 가끔 아니 자주 나보다 안 좋은 상황의 사람들을 떠올린다. 그리고 자기 최면을 건다. 그래 저런 사람들보다는 내 상황이 더 이겨내기 쉬우니까 해보자 아니 해내자!라며 말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남들에게 조언해 주기도 쉽게 말하기도 좀 그렇다. 마치 비도덕적인 생각 같기 때문이다. 내 스스로도 저런 생각을 할 때면 비겁하고 부끄러워질 때도 많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나 자기 최면은 그 누구에게도 비록 엄마 일지라도 말하지 않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책에 내가 비겁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본다는 것 한다는 것에서 조금의 위안 아닌 위안을 느꼈던 것이다. 아마 이 책의 작가의 말은 나의 마음속 어록에 적힐 것이다. 아니 이미 적혀있다.

2024년 11월 19일

참가자대표 : 박**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독자들의 재탄생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4년 11월 21일(목요일) / 장 소 : ZOOM							
참석자 명단	학번	2024****	이름	박**	학번	2024****	이름	신**
	학번	2024****	이름	홍**	학번	2024****	이름	한**
	학번	2024****	이름	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 토의 내용</p> <p>활동 계획 -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히가시노 게이고를 읽고 ai를 이용한 새로운 책 표지 만들기</p> <p>이 책은 매우 인기 있었던 책으로 책 표지의 일러스트 또한 매우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책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ai를 이용해 완전히 새롭게 제작해 보려고 한다.</p> <p><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줄거리></p> <p>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3명의 도둑 쇼타, 아쓰야, 고헤이가 나미야 잡화점이라는 신비한 장소에서 겪게 되는 일을 풀어낸 이야기이다. 그들은 우연히 도달하게 된 나미야 잡화점에서 과거로부터 온 고민 상담 편지를 발견한다. 그들은 처음엔 의심했지만 결국 호기심에 그 편지들에 대한 답장을 쓰기 시작하고 점차 편지의 사람들의 고민에 몰입해간다. 편지에 적혀있는 고민들은 꿈, 사랑, 인생 등 다양하고 심오한 문제를 다룬다. 독자들이 편지에 적혀있는 다양한 사연들과 그 사연에 대한 상담을 해주는 도둑3명을 보면서 그들의 입장에 공감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수 있는 책이다.</p> <p><AI를 이용해 표지를 만든 과정></p> <p>①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AI의 프롬프트에 입력할 말들을 Chat Gpt를 이용해 만들었다.</p>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저자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을 재출간 하려고 하는데 표지를 다시 새롭게 만들거야 근데 어떤 식으로 다시 만들어야 할까?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따뜻한 스토리와 신비로운 분위기가 특징인 만큼, 표지 디자인에서도 이러한 요소를 강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새롭게 디자인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입니다:

1. 테마 강조: 따뜻함과 신비로움

- **배경:** 어두운 밤하늘 아래 조용한 골목길, 잡화점의 불빛이 은은히 비추는 장면.
- **컬러 톤:** 따뜻한 노란빛과 차분한 푸른색을 조합하여 고요하면서도 희망적인 느낌을 전달.
- **포인트:** 잡화점 앞에 놓인 우편함, 별빛이 반짝이는 하늘 등 상징적인 이미지 활용.

2. 핸드드로잉 스타일

- 잡화점과 주위 풍경을 부드러운 일러스트로 표현.
- 아기자기하면서도 감성적인 느낌을 살릴 수 있음.
- 편지나 질문지를 들고 있는 손, 작은 창문 너머로 비치는 따뜻한 불빛 등 디테일 추가.

3. 미니멀리즘 접근

- 잡화점의 간판이나 우편함처럼 상징적인 요소 하나만 중심에 배치.
- 깔끔한 레이아웃으로 책의 핵심 메시지에 집중.
- 흰색 배경에 부드러운 폰트 사용.



4. 타임슬립 요소 강조

-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느낌을 시각적으로 표현.
- 예를 들어, 표지의 반쪽은 오래된 상점, 반쪽은 현대적인 느낌으로 대조를 줌.
- 시계나 별뿔별 등 시간과 연관된 이미지를 삽입.

5. 독자의 감정 연결

- 독자들이 책의 감정을 미리 느낄 수 있도록 포스터 같은 스타일로 제작.
- 등장인물의 뒷모습이나 잡화점 문을 열려는 순간을 담아 호기심을 자극.

참고사항

- 히가시노 게이고의 기존 팬들에게 익숙한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신선함을 더하는 것이 중요.
- 표지 텍스트는 깔끔하고 가독성 있게 배치.
- 독자의 연령층을 고려해 디자인 요소를 너무 어린 취향이나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게 설정.

어떤 스타일이 마음에 드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조언드릴게요!

핸드드로잉과 미니멀리즘 접근 타임슬립 요소 강조를 융합하는게 좋을 것 같아

핸드드로잉과 미니멀리즘 접근에 타임슬립 요소를 융합하면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디자인이 될 것 같아요.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안드릴게요:



핵심 디자인 방향

1. 핸드드로잉 느낌

- 부드러운 선과 텍스처를 활용해 따뜻하고 감성적인 분위기 전달.
- 세부적으로는 잡화점의 창문, 간판, 우편함 등 디테일한 요소를 아기자기하게 그려 넣기.

2. 미니멀리즘 구성

- 복잡한 요소를 배제하고, 주요 상징물만 배치하여 여백의 미를 살림.
- 배경은 단순화된 색상 그라데이션으로 잡화점이 돋보이도록 설계.

3. 타임슬립 요소 강조

-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기 위해 **별동별, 시계**, 또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실루엣**을 추가.
- 한쪽은 과거 느낌(밝은 잡화점), 다른 쪽은 현대 느낌(희미한 도시의 불빛)을 나누어 배치.

구체적인 디자인 제안

1. 표지 배경 구성

- 왼쪽 반: 오래된 잡화점의 앞모습 (밝은 나무 문, 약간 어두운 색감).
- 오른쪽 반: 희미한 도시 야경 속의 별동별(현대적인 느낌).
- 이 두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부드러운 색상 그라데이션.

2. 주요 이미지

- 잡화점의 간판이나 우편함을 중심에 배치.
- 별동별이나 은은한 별빛을 주변에 뿌려 신비로움을 강조.
- 문을 열고 들어가는 뒷모습 실루엣을 작게 삽입해 호기심 자극.

3. 색상 톤

- 따뜻한 베이지 & 갈색: 과거의 따뜻한 분위기 표현.
- 푸른빛 그라데이션: 밤하늘과 현대적인 느낌 강조.
- 포인트 컬러: 별동별의 노란빛이나 간판의 은은한 조명.

4. 텍스트 배치

- 제목은 표지의 중앙 또는 하단에 배치.
- 히가시노 게이코의 이름은 작은 크기로 상단에 배치해 간결함 유지.
- 서체는 손글씨 느낌이나, 간결하고 부드러운 산세리프체를 추천.



한 줄 아이디어 예시

- *****시간을 넘나드는 잡화점의 불빛*****을 감각적으로 표현.
- 독자가 표지를 보는 순간 과거와 현재의 경계에 서 있는 기분을 느끼게.

어떤 구체적인 디테일이 더 필요하다면 말씀 주세요! 디자인 작업의 방향을 더 명확히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 ☒ ☷ ☹ ☺ ~

+ 생성형 AI어플도 추천 받아봄.

이제 이걸 AI를 통해 이미지를 구현해 낼건데 어떤 AI 프로그램을 이용하는게 좋을까? 추천해줘

이미지를 구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AI 프로그램을 추천드릴게요.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에 따라 적합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1. DALL·E 3 (OpenAI)

- **특징:** 텍스트 기반으로 세부적인 묘사가 가능한 AI 생성 도구.
- **장점:**
 - 핸드드로잉, 미니멀리즘, 감성적인 분위기 등 원하는 스타일을 구체적으로 반영 가능.
 - 복잡한 요소를 단순하게 구현하거나 다양한 스타일 시도를 지원.
 - 별뿔별, 잡화점, 시간 흐름 같은 디테일한 연출에 적합.
- **추천 이유:** 디자인을 처음 시도하는 경우에도 쉽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

2. MidJourney

- **특징:** 고품질의 예술적이고 감각적인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 **장점:**
 - 감성적이고 예술적인 일러스트 스타일을 구현하는 데 뛰어남.
 - 핸드드로잉 같은 독창적인 터치가 필요한 경우 적합.
 - 복잡한 배경과 디테일을 잘 살림.
- **제약:** Discord 플랫폼을 통해 사용하며, 다소 복잡한 인터페이스.
- **추천 이유:** 고품질의 감각적 표지를 원한다면 추천.

3. Stable Diffusion (DreamStudio)

- **특징:** 오픈소스 기반으로 커스터마이징 가능.
- **장점:**
 - 원하는 스타일이나 특정 세부 요소를 더 세밀하게 조정 가능.
 - 다양한 확장 프로그램으로 독특한 이미지 구현.
 - 시간과 공간의 흐름 같은 테마 표현에 강점.
- **제약:** 학습 곡선이 약간 필요하며, 원하는 결과 얻으려면 반복 시도가 필요.
- **추천 이유:** 이미지 생성에 익숙하거나 세부적인 조정을 원하는 경우 적합.

4. Canva AI 또는 Adobe Firefly

- 특징: 디자이너를 위한 직관적 AI 도구.
- 장점:
 - 간단한 핸드드로잉 스타일에 적합.
 - 기존 디자인을 커스터마이징하거나 텍스트와 이미지를 조합하기에 좋음.
- 제약: 다른 AI에 비해 창의적인 세부 묘사가 제한적.
- 추천 이유: 간단하고 직관적인 작업을 선호한다면 추천.

추천 순위

1. 초보 & 감각적 이미지 우선: **DALL-E 3**
2. 예술적이고 디테일한 스타일: **MidJourney**
3. 커스터마이징과 세밀함: **Stable Diffusion**
4. 쉽고 빠른 작업: **Canva AI 또는 Adobe Firefly**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할지 고민되거나, 실행 방법이 필요하면 추가로 안내해 드릴게요!

②최종 입력할 말 정리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저자 히가시노 게이고

의 책을 재출간 하려고 하는데 표지를 다시 새롭게 만들거야 아래의 설명대로 디자인 해줘.

디자인 설명

1. 중심 요소:

- 표지의 중앙에 낮은 우편함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 우편함 주변에 떠다니는 편지들이 과거와 현재(미래)를 연결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2. 좌우 배경 구분:

- 왼쪽 (과거):
 - 일본의 오래된 목조 잡화점, 따뜻한 주황색 조명 아래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
 - 부드럽고 따뜻한 보라색과 주황색을 메인 톤으로 사용.
- 오른쪽 (현재와 미래):
 -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과 함께 멀리 보이는 로봇.
 - 녹색과 노란색 톤을 활용해 미래적인 분위기를 표현.

3. 전체적인 색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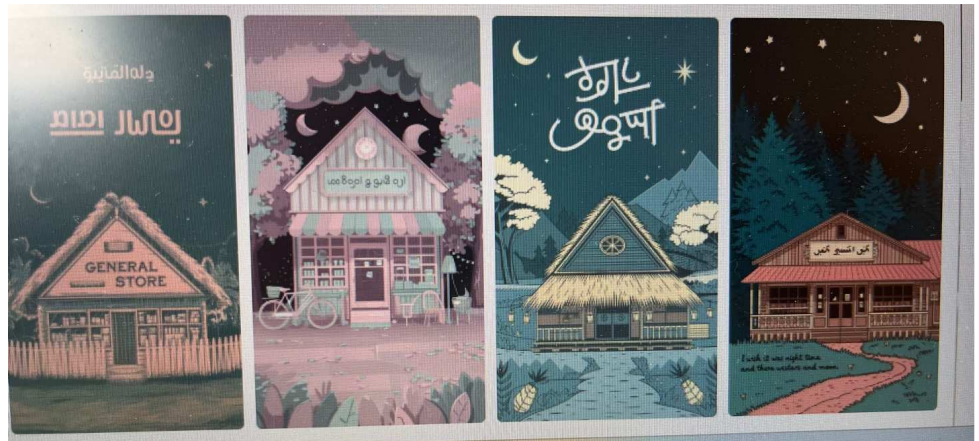
- 보라색, 초록색, 주황색, 노란색을 부드럽게 혼합해 따뜻하면서도 청춘의 감성을 살립니다.
- 일본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색채 조화와 간결한 배경 요소.

③총 3개의 이미지 생성형 AI(DALL·E 3DP, 아이디어 그램, 뤼튼)에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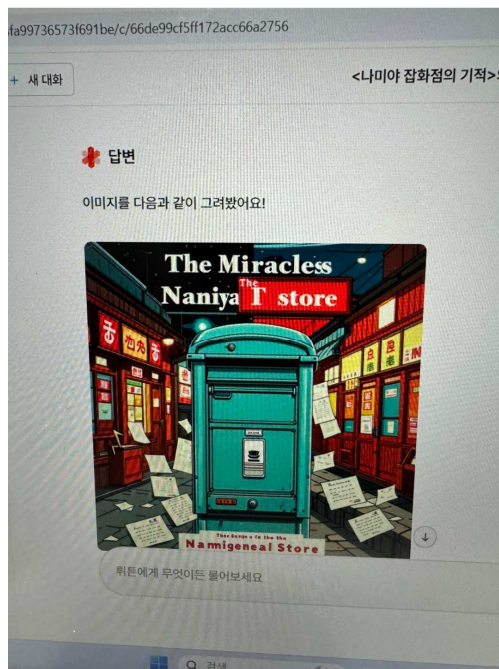
DALL·E 3DP 입력한 결과



<DALL·E 3DP 입력한 결과>



<아이디어 그램에 입력한 결과>



<뤼튼에 입력한 결과>

④ 프롬프트에 입력한 말을 다듬어 다시 입력함.

1. 중심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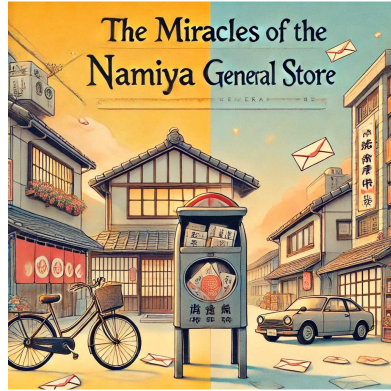
- 표지의 중앙에 낮은 우편함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 우편함 주변에 떠다니는 편지들이 과거와 현재(미래)를 연결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2. 좌우 배경 구분:
- 왼쪽 (과거):
 - 일본의 오래된 목조 잡화점, 따뜻한 주황색 조명 아래 노을이 지는 일본 주택 거리
 - 부드럽고 따뜻한 보라색과 주황색을 메인 톤으로 사용.
 - 오른쪽 (현재와 미래):
 -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와 함께 멀리 보이는 반짝이는 현대의 야경
 - 남색 파랑색, 노란색 톤을 활용해 미래적인 분위기를 표현.
3. 전체적인 색감:
- 보라색, 초록색, 주황색, 노란색을 부드럽게 혼합해 따뜻하면서도 청춘의 감성을 살립니다.
 - 일본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색채 조화와 간결한 배경 요소.



<DALL·E 3DP 입력한 결과>



<아이디어 그램에 입력한 결과>



<위투에 입력한 결과>

⑤최종 투표로 결정된 표지



느낀점:

흥**

내가 히가시노 게이코의 책을 좋아한다. 추리 소설을 좋아해서 그 사람이 쓴 책을 종종 읽는다. 니마야 집화점의 기적은 추리소설은 아니지만 아주 유명한 책이다. 그래서 예전에 샀는데 읽다가 중간에 그만뒀던 책이다. 이번 기회에 완독을 할 기회가 생겨서 좋았다. 인기 있는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았다. 우선, 과거와 현재의 이어짐이 나에게 큰 흥미를 주었다.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읽으면서 힐링이 되는 기분이었다. 이 책을 읽고 표지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여러 고민이 들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한대로 ai 표지가 잘 나오지 않아 힘들었지만 재밌었다. 현재는 ai활용이 중요한 시대이므로 이를 활용한 활동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

이 활동을 통해 책의 표지가 독자들을 끌어당기고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는 중요성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표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그림이나 이미지가 아닌, 책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담아내어 독자에게 첫인상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니마야 집화점의 기적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소통이라는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우체통을 중심에 배치하고 과거와 현재를 나눈 디자인을 구상하면서, 표지가 작품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담아낼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임**

AI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은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다. 책을 읽은 후 이 책만의

따뜻한 감성과, 시간의 연속 등 내가 인상깊었던 요소들을 모두 드러나게 명령어를 입력하는것도, 원하는 결과물을 얻는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 답답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팀원들과 명령어를 조금씩 수정하며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

한**

나미야 잡화점에서 중요한 도구인 편지들의 사연을 쓴 사람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나는 책을 읽으며 어느 한 사람의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편지들의 사연을 읽으며 '나라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라고 몰입해서 읽으며 삶에서 중요한 요소들인 사랑, 꿈 등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 볼 수 있었다.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 이야기를 진행해나가는 작가의 능력에 감탄하며 읽었고, 전체적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였다.

박**

나미야 잡화점을 중학교때 친구의 추천으로 읽었다. 그 당시에는 소설보다는 시사와 관련된 내용을 많이 읽었던 때여서 그다지 마음에 크게 남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책도 다시 읽고 난 후에 일본에서 제작한 나미야 잡화점을 원작으로 한 영화도 같이 보았다. 영화에서는 원작 소설의 섬세함을 담지는 못했다. 하지만 분위기와 저자가 전달하려는 내용은 잘 그려낸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나와 같이 책을 읽도 또 다른 느낌을 받고 싶다면 영화도 추천한다. 이번 활동은 앞서 계획한 활동보다 더욱 기대하면서 진행했다. AI를 이용해 책의 표지를 새롭게 만드는 활동이 매우 새롭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AI를 이용해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학교의 여러 수업에서는 chat gpt에서 정보나 계획들을 얻기 위해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여러 방법을 배우거나 활용하는 연습은 해 봤지만, 그와 다른 이미지를 생성하려고 하다 보니 막막했다. 그래도 유튜브와 네이버를 찾아가며 입력 방법을 익혀서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첫 생성을 시도했지만 원하는 만큼의 완성도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방법을 시도해 본 것에서 의의가 있음을 가지고 가며 이 활동을 좋게 마무리했다.

2024년 11월 21일

참가자대표 : 박**